



하바롭스크 철도역 맞은편에 탐험가 하바로프의 동상이 서 있다.

러시아 하바롭스크·스보보드니 100년 전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 ‘애국혼’ 서린 곳 “다시는 우리끼리 싸우는 일이 없기를...”



우초스 전망대에서 중국 쪽으로 바라본 눈 덮인 아무르강의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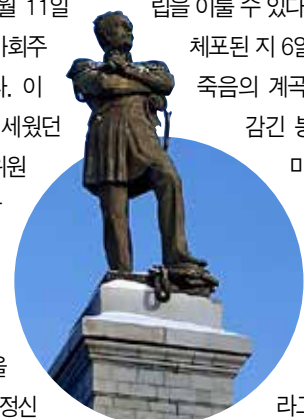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지명은 1651년 이곳을 발견한 탐험가 예로페이 하바로프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는 레나강과 아무르강을 탐험하다가 원주민을 쫓아내고 요새를 건설했다. 청나라는 반격에 나서 러시아 세력을 아무르강 이북으로 몰아내고 1689년 네르친스크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총독 무리비요프 아무르스키는 태평천국의 난으로 위기에 몰린 청나라 조정을 압박해 이곳을 탈환하고 1858년 아이훈조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이 조약에 따라 하바롭스크가 건설된 지 160주년을 맞는다.

글·사진 이희용 연합뉴스 선임기자

하바롭스크는 한겨울이면 영하 50도에 육박하는 동토의 땅이지만 러시아의 대동맥인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지나는 데다 동시베리아의 젓줄인 아무르강이 우수리강과 합류하는 지점이어서 극동러시아 공업·상업·문화의 중심지로 꼽힌다. 하바롭스크 기차역 광장에는 하바로프의 동상이 우뚝 서 있고, 아무르 강변의 우초스 전망대에는 아무르스키 동상이 중국 쪽을 응시하고 있다. 하바롭스크가 우리 민족에게 애뜻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러시아혁명을 이끈 볼셰비키 정당과 손잡고 빼앗긴 국권을 되찾으려는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의 애국혼이 서려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최초 '사회주의 정당' 결성 100주년
이동휘·유동열 등 좌파 민족주의자와 김일렉산드라·오하묵 등 한인 2세 볼셰비키 당원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8년 5월 11일 하바롭스크에서 아시아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을 결성했다. 이 상설과 함께 대한광복군정부를 세웠던 구한국군 장교 출신의 이동휘가 위원장에 뽑혔으나 실질적인 창당의 산파역은 하바롭스크 인민위원회 외무위원이자 한인 최초의 볼셰비키 당원인 김일렉산드라였다. 한인사회당은 기관지 '자유종'을 발간해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 독립정신

을 일깨우려는가 하면 보문사란 출판사를 통해 교과서 등을 펴내며 계몽과 교육에 힘썼다. 산하 군사조직인 한인적위대는 러시아 혁명군인 적군(赤軍)에 가담해 반혁명 세력인 백군(白軍)의 일원으로 참전한 일본군과 맞서 싸웠다. 그러나 하바롭스크를 무대로 펼쳐려던 독립 투쟁의 구상은 넉 달 만에 막을 내렸다. 1918년 9월 하바롭스크가 백군의 수중에 떨어지자 한인사회당 주역의 일부는 백군에게 붙잡혔고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졌다. 체포된 한인사회당 당원들은 아무르 강변의 우초스 절벽으로 끌려갔다. 유동열·김립·이인섭 등은 중국인 행세를 하며 풀려났으나 김일렉산드라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백군 간부가 "조선인이 무슨 이유로 러시아 내전에 참여했느냐"고 묻자 그녀는 "조선 인민이 러시아 인민과 함께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해야만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당당히 말했다. 체포된 지 6일 만에 카를 마르크스 거리 옆 죽음의 계곡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눈에 감긴 붕대를 풀자 김일렉산드라는 마지막으로 열세 걸음을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조선 13도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선 각지의 젊은이들이 떨쳐 일어나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쟁취해 달라고 당부하며 최후를 맞았다.



우초스 전망대에 세워진 아무르스키 총독 동상



1 김 알렉산드라가 외무위원으로 일하던 하바롭스크 볼셰비키 인민위원회 건물 2 김 알렉산드라가 근무하던 곳이라는 사실을 러시아어로 새겨놓은 안내판



2

축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김알렉산드라 처형지로 추정되는 죽음의 계곡에는 오벨리스크(고대 이집트의 사각첨탑) 형태의 비석과 사회주의 혁명전사의 조각이 세워져 있고 그 아래 "소비에트(인민위원회) 건설을 위해 숨진 사람들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여기에도 김알렉산드라를 떠올릴 만한 표지는 찾을 수 없다.

그나마 김알렉산드라의 자취가 남은 곳은 무라비요프 아무르스카야 22번지의 3층 건물이다. 이곳에 러시아혁명 직후 인민위원회가 들어서 외무위원인 김알렉산드라 집무실이 있었다. 이 건물은 원동공화국(극동공화국) 중앙은행 청사로 바뀌었다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의류 매장이 1층을 차지하고 있다. 예전엔 건물 외벽에 김알렉산드라 얼굴 부조상이 붙어 있었으나 지금은 철거돼 행방을 알 수 없고, "하바롭스크시 소비에트 인민위원인 김알

김알렉산드라가 순국한 지 100년이 지난 1월 21일, 한인사회당 간부들이 끌려온 우초스 절벽은 공공 열어붙은 채 눈에 덮인 아무르강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초스 전망대에 세워진 아무르스키의 동상과 아무르강 풍경은 루블화 최고액권인 5천 루블 지폐에 새겨질 만큼 러시아에서도 명소로 꼽힌다. 아래쪽 산책로에는 하바로프와 동료 탐험대원들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이 붙어 있다. 그러나 김알렉산드라를 비롯한 한인사회당 간부들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이곳에서 한국인 답사객의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이 세운 표지판이다. 검은 석판에 황금색 글씨로 "조선로동당 총비서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일 동지께서 2001년 8월 17일 하바롭스크시를 방문하시었다"라고 러시아어와 한글로 적어놓았다. 북한은 김정일이 백두산 밀영(密營)에서 태어났다고 내세우고 있으나 탄생지가 하바롭스크라는 설도 있어 그의 방문과 관련해 흥미로운 추



5



6

5 한낮인데도 하바롭스크공방의 온도계가 영하 27도를 가리키고 있다. 6 하바롭스크 레닌광장의 얼음조각 7 스탈린 정권 때 처형된 사람들을 기리는 추모비 8 위에서 셋째줄에 러시아어로 조명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9 하바롭스크의 시립공동묘지. 왼쪽 건물은 기도실이고 오른쪽에 희생자들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가 서 있다.

“하바롭스크도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 못지않게 독립운동가들의 일이 서린 곳인데 자취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요.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가 뜻을 모아 역사의 현장을 기억할 수 있는 사업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백규성 극동시베리아고려인단체협의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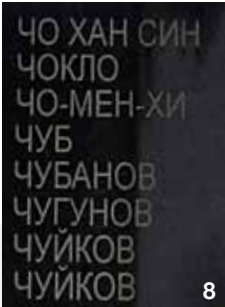
렉산드라가 이 건물에서 일했고 1918년 영웅적으로 죽었다"는 내용의 러시아어 안내판만 붙어 있다. 한인사회당 창당대회가 열린 칼리나 거리 15번지에는 고층빌딩을 세우기 위해 기림벽을 쳐 놓고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었다. 이전까지 제빵공장이 자리 잡고 길가에 잡화점이 있었다가 계룡건설이 리치빌이란 이름의 두 동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의 권기열 원장은 "시공사가 한국 기업이라서 한인사회당 창당대회 개최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석이나 상징물을 세워 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낙동강' 작가 조명희 말년 보낸 하바롭스크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바로 옆의 포포프스카야 18번지는 한인사회당 간부회관이 있던 곳이다. 나중에 철도국 건물이 들어섰다가 철거됐고

지금은 기림벽에 둘러싸인 채 몇 년째 공터로 방치돼 있다. 하바롭스크는 프롤레타리아문학(프로문학)의 백미로 꼽히는 소설 '낙동강'의 작가 조명희가 말년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 그는 1928년 소련으로 건너가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 등지에서 잡지를 발간하고 교편을 잡으며 여러 편의 시와 소설 등을 남겨 '디아스포라 문학의 개척자'이자 '고려인 문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1937년 스탈린 정권이 고려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킬 때 사전 정치작업의 일환으로 지도자급 인사 2천500여 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조명희도 9월 18일 일제 간첩 혐의를 쓰고 투옥돼 이듬해 5월 11일 총살됐다. 스탈린 사후 1956년 복권돼 누명을 벗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조명희 문학비가 세워져 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그의 후손이 이주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는 나보이문학박물관에 조명희 기념실이 꾸며져 육필 원고와 사진 등이 전시돼 있다. 출생지인 충북 진천에는 2015년 포석 조명희 문학관이 문을 열었다. 진천군은 1994년부터 포석 조명희 문학제를 열어 그의 항일 정신과 문학 세계를 기리고 있다.



7



8

하지만 조명희가 마지막 2년간 살다가 숨진 하바롭스크에는 그를 기억할 만한 유적이나 기념물이 없는 형편이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콤소몰스카야 89번지에는 조명희가 살던 집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철거됐고 현재 새 건물을 짓고 있다. 카를 마르크스 거리의 시립공동묘지에는 1930년대 스탈린에 의해 처형된 사람들이 묻혔는데, 조명희의 무덤은 찾을 수 없고 희미한 흔적만 남아 있다. 입구에 정교회 성당 모양의 기도실이 있고 바로 옆에 희생자들을 기리는 검은색 기념비 한 쌍이 서 있다. 빗돌 네 면에 러시아어로 빼곡히 적힌 4천300여 명의 명단 가운데 조명희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하바롭스크에는 한민족의 흔적이 또 하나 있다. 시내 중심가의 김유천 거리는 고려인 이름을



3



3 우초스 전망대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하바롭스크 방문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4 한인사회당 간부회관 자리는 철도국 건물이 들어섰다가 철거돼 현재 공터로 남아 있다.



9



1 하바롭스크의 김유천 거리 이정표. 고려인 이름을 딴 거리로는 러시아에서 유일하다.
2 우스펜스키(성모승천) 성당 파사드를 장식한 예수상
3 우랄산맥 동쪽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프레오브라젠스키(구세주) 성당



3

만 것으로는 러시아에서 유일하다. 본명은 김유경인데 1929년 소련이 철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분쟁을 벌일 때 소련군 중위로 참전해 전공을 세웠다.

백규성 극동시베리아고려인단체협회 회장은 "하바롭스크도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 못지않게 독립운동가들의 열이 서린 곳인데 자취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면서 "비록 늦었지만 한인사회당 창당과 김일렉산드라 순국 100년, 조명희 타계 80주년을 기념해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가 뜻을 모으고 시 당국과 협조해 역사의 현장을 기억할 수 있는 사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하바롭스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는 향토박물관과 전쟁박물관, 극동미술관, 레닌광장, 명예광장, 다나모공원 등이 꼽힌다. 우랄산맥 동쪽에서는 가장 큰 정교회 사원이라는 프레오브라젠스키(구세주) 성당과 아무르강 인근의 우스펜스키(성모승천) 성당도 볼 만하다. 하바롭스크주 통틀어 고려인이 8천여 명에 지나지 않는데도 중앙시장에는 고려인 아주머니들이 한국식 반찬을 팔고 있어 한인과 한국인 여행객이 자주 찾는다.

양분된 러시아 사회주의 독립운동 진영

이동휘는 1919년 중국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국무총리로 취임하면서 한인사회당 본부를 상해로 옮기고 하바롭스크에는 지부를 뒀다. 1920년 1월 적군이 이르쿠츠크를 점령하자 한인사회당 창당 당원인 오하묵·김철훈 등은 이르쿠츠크 공산당 한인지부를 조직했다가 그해 1920년 9월 고려공산당 중앙총회로 이름을 바꿨다.

이로써 러시아의 사회주의 독립운동 진영은 한인사회당 지부(상해파)와 고려공산당 중앙총회(이르쿠츠크파)로 양분됐다. 공산주의 국제연합 코민테른은 볼셰비키 당원들이 포함된 이르쿠츠크파를 노골적으로 지원했다. 이르쿠츠크파는 유리해진 국면을 이용해 이르쿠츠크에서 1921년 5월 고려공산당을 창당했다. 이동휘도 며칠 뒤 상해에서 고려공산당 창당대회를 열어 3년 만에 한인사회당 간판을 내렸다.



4



5



6

4 자유시 참변이 벌어진 스보보드니 체스노코프역의 육교
5 자유시 참변 현장의 랜드마크가 된 체스노코프역 급수탑
6 스보보드니 소벡스키 마을에 세워진 자유시 참변 희생자 추모비

독립군 세력 위축 불러온 자유시 참변

두 파가 주도권 다툼을 벌이던 중 1921년 6월 28일 이르쿠츠크파와 적군이 스보보드니에 주둔한 상해파 독립군 부대를 무장해제하려 하다가 충돌이 빚어져 300여 명이 숨지고 250여 명이 행방불명된 사건이 자유시 참변(혹하사변)이다. 적군이 1920년 알렉세예프스크를 점령하고 '자유'를 뜻하는 스보보드니로 개칭하자 한인들은 자유시라고 불렀다.

이 사건으로 독립군 세력이 크게 위축된 것은 물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둘러싸고 고려공산당 내분이 격화됐다. 코민테른은 이후 소련(러시아) 내에서 한인들의 독자적인 조직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지휘 체계에 편입시켰다. 이로써 소련에서의 자생적 사회주의 독립운동은 막을 내렸다. 이들의 존재는 광복 후 남북한에서 각각 반공 체제 수립과 김일성 신격화 과정에서 빠르게 잊혔다.

살육전이 벌어진 수라세프가에는 현재 체스노코프역이 들어서 있다. 철로를 가로지른 육교 너머로 우뚝 솟은 대형 급수탑은 참변 현장의 랜드마크가 됐다. 이르쿠츠크파의 공격을 받고 도망치던 상해파 독립군 대원 31명은 인근의 제야강을 건너다가 물살에 휩쓸려 숨지고 말았다. 일설에 따르면 차마 동쪽이자 동지이자 전우에게 충을 겨눌 수 없어 강에 몸을 던져 자결한 대원들도 있었다고 한다. 이 일대 어디에서도 그때의 참극을 말해주는 표지나 안내판은 찾을 수 없다.

참변이 일어난 지 96년 만인 지난해 6월 9일 스보보드니 외곽 소벡스키 마을에 추모비가 세워졌다. 소벡스키는 고려인 마을이었다가 1937년 강제이주 뒤 러시아인 마을로 바뀌었다. 마을 옆의 공동묘지에는 당시 희생자가 많이 묻혔다고 한다.

비석 앞면 왼쪽에는 '다시는 우리끼리 싸우는 일이 없기를...'이란 문구가 한글로 쓰여 있고 가운데와 오른쪽엔 한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西曆(서력) 1921. 06. 28'과 '黑江(흑강) 自由市事件(자유시사건) 獨立軍殉絶地(독립군순절지)'라고 각각 새겨놓았다. 아래쪽에는 러시아어로 '1921년 이 땅에서 희생된 한인 빨치산 잠들다'라고 적었다.

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항편이 있는 하바롭스크와 달리 스보보드니는 한국에서 가기가 쉽지 않다. 시베리아횡단열차로 하바롭스크에서 12시간 걸리고 가장 가까운 블라고베렌스크공항에서도 160km 떨어져 있다.

1월 23일 하바롭스크에서 비행기와 택시를 갈아타고 스보보드니에 도착한 뒤 물어 물어 추모비를 찾았다. 그 앞에는 누가 언제 바쳤는지 모를 꽃다발이 눈에 띄어 놓여 있었다. 비석이 석양을 등지고 있어 비문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도 원편에 새겨진 문구가 가슴에 박혔다. "다시는 우리끼리 싸우는 일이 없기를..."